

전후 자유주의의 반(反)극단주의적 전통에 관한 연구: '냉전 자유주의' 담론 및 이사야 벌린의 사상을 중심으로*

김민혁 | 경희대학교**

조대근 | 고려대학교***

| 국문요약 |

이 논문은 20세기 중반의 시기, 자유사회 안팎의 위협에 맞서 이사야 벌린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反)극단주의적 성향의 자유주의 전통에 관한 사상사적 분석을 제시한다. 전후시기 자유주의 전통의 온건하고 절제된 지평에 대한 검토가 오늘날 자유주의를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 심화되는 이념적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 논문은 다음의 분석을 전개한다: 먼저, 우리는 '냉전 자유주의' 개념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의 지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 시기의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사야 벌린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유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이 연구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구체적인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 냉전 자유주의, 전후시기(post-1945), 이사야 벌린, 반(反)극단주의, 정치적 온건주의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466). 이 글의 초고는 2024. 5. 3. 한국정치평론학회와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경희대 공공대학원이 공동주최한 <한국정치평론학회 춘계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다.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이경민 교수님, 그리고 투고본을 읽고 사려깊은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 제1저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commongood@me.com

*** 제2저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chodk0614@gmail.com

1. 서론

이념적 양극화의 심화와 타협적 정치문화의 실종은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양차대전과 전간기(the interwar period)에 표출된 극단주의적(extreme) 정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전후 시기(post-1945)에 형성되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규범적 권위 또한 — 공공연하게 비(非)자유주의적 가치를 내세우는 포퓰리즘 운동의 전 세계적 약진에서 확인되듯 — 상당한 침식을 겪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경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2010년대 중후반부터 서구 자유주의에 대한 위기담론이 새롭게 대두해왔고, 이러한 담론을 주도한 자유주의 비판론자들은 현대 자유주의에 내재한 근본적 한계점,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전후 냉전시기를 거치며 형성된 당대 자유주의자들의 편협하거나 왜곡된 지향을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Brenes and Steinmetz-Jenkins 2021; Deneen 2018; Moyn 2023; Rosenblatt 2023).¹⁾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전후 자유주의가 초래한 문제로 귀속시키려는 (자유주의 비판론자들의) 이같은 시도는 이 시기의 자유주의 전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치사상사 연구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며 최근 거대한 논쟁이 형성되고 있다.²⁾ 이같은 반론의 대열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전후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비판가들이 범하고 있는 단순화의 오류와 탈맥락화의 오류 등을 지적하며, 20세기 중반의 전후 자유주의 전통이 가진 넓고 복합적인 지평에 대한 학문적 재조명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당대의 이념적 극단주의, 전체주의와 냉전체제, 역사적 트

-
- 1) 이 글에서 ‘전후(시기) 자유주의’ 혹은 ‘냉전(시기) 자유주의’라는 표현으로 서술되는 자유주의 전통은 2차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5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시기에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유주의 전통을 지칭한다.
 - 2) ‘자유주의의 위기’ 담론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논의 및 자유주의 전통을 다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최근의 정치사상사 연구동향에 관해서는 김민혁(2023)의 최근 논문을 참고.

라우마 등에 맞서서 온건한 형태의 자유주의 전통을 모색했던 이사야 벌린이나 레이몽 아롱, 라인홀드 니부어 등과 같은 지식인들의 사유와 실천을 재조명하고 재평가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Craiutu 2017; Cherniss 2021; Müller 2008; 2019; Stewart 2020).³⁾

전후 냉전시기 자유주의 전통에 관한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같은 상반된 두 시각 사이의 논쟁은 현시점에서 자유주의를 주제로 한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 논쟁의 지형을 균형있게 이해하고 냉전과 자유주의 전통의 발전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작업은 냉전과 이념갈등의 유산이 지속되고 있는 동시에 자유주의적 문화의 토대가 여전히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서 자유사회를 향한 지향점을 모색하는데 있어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냉전질서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전후시기의 복합적인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 특히 사상사적 관점에서 — 국내 학계에서의 관심과 연구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현실이다.⁴⁾ 이 논문은 이같은 연구사적 공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⁵⁾

한국의 자유주의 수용 및 발전과 관련한 기존의 주요 연구들이 지적해왔듯(김

-
- 3) 이 글에서 지칭되는 ‘온건한’(moderate) 성향은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명료하게 규정될 수 있는 정치적 입장이라기보다는, ‘극단주의’(extremism)로 지칭되는 당대의 과격한 이념적 열정을 경계하고 비판하며 일정한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 등을 강조했던 유연한 형태의 규범적·윤리적 태도 및 감수성의 차원을 의미한다.
- 4) 예컨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인 이사야 벌린에 관한 국내에서의 체계적인 형태의 사상사 연구는 최근에서야 가시화되고 있다(e.g., 박동천 2020; 유홍림 2019; 전보람 2023). 그리고 벌린과 동시대를 살았던 주요 자유주의 지식인으로 레이몽 아롱, 아서 슐레진저 등에 관한 정치사상(사)적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라인홀드 니부어에 대한 2000년대 이후의 연구도 전재성(2005)의 논문이 거의 유일하다. 반면에 오늘날 보수적 시장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 그러나 전후 자유주의 지식인 사회에서 이미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였던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대한 관심 및 연구는 폭넓게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후 자유주의 전통에 관한 국내의 담론의 지형이 일정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 5)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수용 및 그 취약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로는 최장집(2011, 69-72)을 참고할 것.

동춘 2021; 문지영 2011; 이나미 2021), 해방 이후에 전개된 전 세계적 냉전질서와 한반도의 전쟁 및 분단체제는 우리 현대사에서 자유주의가 ‘반공’이라는 이념적 굴레에 속박된 형태로 왜곡되어 이해되고 실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한국사회의 대대적인 사회적·경제적 구조재편과 이에 따른 갈등 및 혼란은 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혹은 편향된 인식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요컨대, 냉전질서를 배경으로 발전한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는 반공이념과 자유시장경제, 개인주의적 문화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편향성과 교조성의 위험을 내포한 전통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하지만 전후시기에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실제로 형성된 자유주의 전통은 이같은 단순화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전통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뜨거운 논쟁의 주제이기도 한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넘어서) 교조주의와 유토피아주의적 사고가 널리 퍼져있던 전후 냉전시기의 분위기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맞서 반극단주의와 타협, 열린 태도와 유연성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을 중심으로 형성된 — 전후 자유주의의 온건하고 유연하며 다원주의적인 전통이다. 오늘날 ‘냉전 자유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잊혀지거나 오해되고 있는 이같은 지평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 시킴을 통해서 우리는 냉전적 맥락과 전후시기 자유주의 전통 사이에는 ‘반공’이라는 단순화된 이념적 지향점으로는 설명불가능한 복합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문에서 우리는 반극단주의를 지향한 전후 자유주의 전통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한다. 첫째, 전투적 사고에 기반한 반공 이념투사들과는 달리, 벌린을 중심으로 한 온건한 형태의 전후 자유주의는 유토피아주의에 대한

6) 마이클 왈저가 지적하듯, 이러한 입장은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라는 용어로 묘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인다(Walzer 2023, 1).

비판을 바탕으로 다원주의에 기초한 회의주의, 신중함, 온건함 등의 태도를 내세웠다. 이념적 좌·우의 극단주의를 모두 체험한 전후시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극단주의와 전체주의가 가치의 다원성을 무시한 일원론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들의 ‘완벽한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열망이 야만적인 폭력과 잔혹함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공유했다(Aron 2022; Berlin 1997; Popper 1986; Shklar 1998). 일원론적 세계관과 그로부터 파생하는 실천들에 대한 반발로 전후시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세상에 는 옳고 그름으로 양분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 가치들 사이 조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특히나 약자에 위치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명목으로 희생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개인의 자유에 있어 일정한 불가침의 영역을 수호하고, 다원적 가치들 사이에 보상과 화해와 균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Berlin 2014, 414-423).

둘째, 극단주의에 맞선 전후 자유주의 전통은 이념에 매몰된 경직된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유토피아를 추구하기보다는 ‘적정수준의 사회’(decent society)라는 절제된 이상을 추구했다. 이념에 대한 독단주의적 태도에서 형성되는 광신주의를 혐오한 전후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이념에 대한 맹신에 저항했다. 그리고 이들은 독단주의적 이념의 광신성과 폭력성에 반대하며, 추상적인 이념에 헌신하기 보다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회적 문제들(e.g. 빈곤, 문맹률, 실업과 경제공황 등)을 민주적이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을 우선시하였다(Aron 2022; Berlin 2013b; Popper 1986). 이와 같은 당대의 온건한 자유주의자들의 태도는 경제적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를 절대적 신조로 삼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이념적 경직성과 대비를 이룬다.

셋째, 온건함을 지향한 전후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기풍(ethos) 혹은 감수성(sensibility)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체계적인 사유를 발전시켰다.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지양하며, 이들은 앞서 서술한 온건함과 신중함을 자유

주의 사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덕성(virtue)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덕목들에 대한 지향은 추상적이고 인공적인 개념들의 설계를 통해 이상적 세계(ideal state)의 모습을 제시하는 자유주의 내부의 또 다른 전통과 차별화된다. 완벽하게 설계된 제도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시민들의 선택과 운영에 따라 의도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제도를 운영하는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덕성과 기풍에 대한 논의도 제도에 대한 논의 못지않게 자유사회에 대한 지향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후시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자유주의 세계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주의적 문화와 기풍에 천착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자유주의적 시민성과 정치문화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정리하면, 이 논문은 20세기 전반기 좌·우 전체주의 체제뿐 아니라 매카시즘의 광풍 속에서 자유주의적 가치와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분투했던 일군의 사상가들, 그중에서도 이샤야 벌린을 중심으로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형성되었던 반극단주의 성향의 전후 자유주의 전통에 관한 사상사적 분석을 제시한다. 공산주의와 비공산주의 사이의 극심한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인해 열린사회의 가치가 서구사회의 안과 밖에서 실존적 위협을 받던 당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절제되며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유주의를 옹호했던 당대의 대표적인 지식인 가운데 하나로 벌린이 남긴 핵심적 기여는 매우 중요하며 오늘날 한국사회에도 큰 함의를 가진다.⁷⁾ 특히 우리는 벌린이 전후시기에 제시한 자유주의적 감수성과 적정수준의 사회라는 절제된 이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실천적 문제의식 하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우리는 벌린과 유사한 문제의식 및 지향점이 라인홀드 니부어(Reinhold Niebuhr)와 아서 쉘레진저(Arthur M. Schlesinger Jr.), 레이몽 아롱

7) 전후시기에 벌린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주요 지식인으로는 프랑스의 레이몽 아롱, 그리고 호주와 영국을 주 무대로 활동했던 칼 포퍼, 그리고 동아시아적 맥락에서는 일본의 마루야마 마사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는 필자의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놓으며, 이 논문에서는 전후 자유주의 전통의 주 무대였던 미국과 영국에서 온건한 자유주의 전통을 주도했던 벌린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Raymond Aron) 등과 같은 당대의 핵심적인 자유주의 지식인들에 의해 상당부분 공유되고 실천되었음을 보여주며, 이 논문에서 ‘온건한 성향’의 전통으로 지칭하는 전후 자유주의의 한 갈래가 유의미한 형태로 존재하였음을 주장한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전후 자유주의 전통을 이해함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서의 ‘냉전 자유주의’를 둘러싼 담론 및 최근의 논쟁의 지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며 이 시기의 반극단주의적이고 온건한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별린을 중심으로 형성된 당대의 자유주의 전통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지향했던 자유주의적 감수성과 적정수준의 사회라는 절제된 이상, 그리고 반(反)유토피아적 자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결론(IV장)에서는 논의를 종합하며, 별린의 중심으로 한 반극단주의적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재조명이 현재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구체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냉전 자유주의: 개념, 논쟁, 함의

20세기 중반의 전후 서구사회에서 냉전질서를 배경으로 형성된 자유주의 전통을 둘러싼 오늘날의 담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냉전 자유주의’(Cold War liberalism)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였고 어떠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용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둘러싼 열띤 논쟁이 최근 십수 년간 서구학계를 중심으로 전개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규정될 수 있으며 이 개념이 어떤 유용성과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뚜렷한 합의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개념의 현재적 함의를 긍정하는 논평가들과 비판적 논평가들이 이 전통을 대표한다고 여기는 지식인들의 목록 사이에는 (일부 공통점도 있지만)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당대의 대표적인 시장주의 경제사상가 프리

드리히 하이에크를 ‘냉전 자유주의’ 전통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를 두고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먼저 언급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서구의 전후시기(특히 1945년 이후부터 1950년대 전반에 걸친 시기)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용어가 고안되고 널리 퍼진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였으며, 신좌파(the New Left)를 중심으로 냉전체제 하에서 자유주의자들의 태도와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Moyn 2023, 1). 따라서 ‘냉전 자유주의’라는 표식은 전후시기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채용한 자기정체성이 아니라 전후 자유주의 전통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1960년대에 이념적 경쟁자들에 의해 부여된 인위적 정체성에 가깝다고 하겠다.

‘냉전 자유주의’의 개념 정의상의 난점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만약 ‘냉전 자유주의자’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공표한 이들이 당대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냉전 자유주의’가 무엇이고 누가 이 개념에 속하는지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냉전 자유주의에 대한 엄밀한 규정이 앞선 난점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이 개념은 여전히 일정한 유용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냉전 자유주의’ 담론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984년에 출간된 『서구 자유주의 융성과 쇠퇴』에서 영국의 정치사상사 연구자 앤서니 아블라스터(Anthony Arblaster)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냉전 자유주의에 대한 1980년대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비판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냉전 자유주의는 전혀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며 자유주의를 배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Arblaster 1987, 310).⁸⁾ 아블라스터는 1945년 이후 ‘부활한 자유주의’를 ‘냉전 자유주의’로

8) 아블라스터는 “냉전 자유주의”을 비판하는 작업에 책의 한 챕터(제18장: 냉전 자유주의)

지칭하고 있으며 그것의 지배적 특징으로 ‘반(反)공산주의’를 거론한다. 그는 전후시기에 형성된 자유주의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동일시하고 이에 대한 증오와 공포에 지나치게 휩싸인 나머지 보수화되고 자유의 지평을 축소하였으며 매카시즘에 (대체로 침묵으로) 동조함으로써 자유주의의 본질적 가치마저 저버렸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아블라스터는 반(反)유토피아주의, 사회경제적 혁명에 대한 반대, 소극적 자유와 엘리트 민주주의관 지향 등을 냉전 자유주의의 주요속성으로 설명한다(Arbalster 1987).

반공주의로 변질된 이념으로서 ‘냉전 자유주의’를 묘사하는 아블라스터의 관점을 보다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자유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1967년에 드러난 <문화자유회의>(Congress for Cultural Freedom)에 대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자금지원 폭로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1950년 설립된 문화자유회의는 35개국에 지부를 두고 『인카운터』(Encounter)를 비롯하여 유력 잡지를 20종 이상 발행하는 등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자유진영의 학술 및 문화활동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냉전체제 하에서 서유럽에 대한 문화적 지원 및 선전선동 활동의 필요성을 가졌던 CIA는 문화자유회의의 창립초기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왔다(Saunders 2016[1999]). 미국의 정보기관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 단체에 은밀히 후원을 해왔다는 사실은 아블라스터에 의해서도 ‘냉전 자유주의’의 타락과 동시에 지식과 권력의 결합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으며, 냉전 자유주의에 대한 이같은 비판은 1999년에 출간된 프랜시스 스톨너 손더스의 논쟁적인 저서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에서도 계승되어 1950년대와 60년대 자유주의 지식인의 모순적인 혹은 위선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후시기 서구 자유주의 지식인 그룹 내부에도 ‘냉전 자유주의’라는 단순화된 정식화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생각과 입장들이 존재하였다. 예컨대

를 할애하고 있으며, 책의 서문 첫 문장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의 최초의도는 냉전 자유주의에 관한 책을 서술하는 것이었다(Arbalster 1987, ix)

1960년대 후반에 CIA와의 관계로 논란의 중심에 선 <문화자유회의>에 참여한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이 관계를 인지하고 적극 활용한 강경파 반공주의자(e.g., 시드니 훅(Sidney Hook),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 등)도 있었지만 매카시즘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광기어린 반공주의를 경계하고 비판한 아서 슐레진저, 레이몽 아롱, 이사야 벌린 등의 지식인들도 있었다.⁹⁾ 따라서 ‘냉전 자유주의’를 전후 미국의 보수반공주의 및 제국주의적 문화 프로젝트의 산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와 심각한 과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Isaac 2002).

‘냉전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오늘날의 상당한 관심이 다시 촉발된 데는 최근 십수 년간 얀-베르너 뮐러(Jan-Werner Müller)를 비롯하여 조슈아 처니스(Joshua Cherniss), 아우렐리안 크라이우투(Aurelian Craiutu) 등의 정치사상사 연구자들에 의한 20세기 중반의 핵심적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남긴 지적 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재조명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냉전 자유주의’에 관한 기존의 도식적 설명이 가진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냉전시기 자유주의 전통이 가진 복합적 측면과 개별 사상가들이 발전시킨 구체적인 관념들을 상세히 검토함을 통해 20세기 자유주의 전통의 다층성과 사상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전후시기 냉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의 전통이 ‘축소’되고 ‘보수화’ 되었다는 일련의 지적들이 타당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한다. 실제로 ‘냉전 자유주의’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은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가 전체주의와 냉전을 겪으면서 이전 시대의 자유주의가 지녔던 핵심적인 미덕들(예컨대, 진보적 헌신, 공동체적 지향 등)을 상실한 일종의 “좀비 이데올로기 (zombie ideology)” (Brenes and Steinmetz-Jenkins 2021)로 전락했다는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양차대전과 냉전의 결과로 자유주의자들이 공동체적 윤리와 시민적 미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9) 손더스는 벌린과 아롱 또한 CIA 펀딩에 대해 1967년의 폭로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Saunders 2016, 654-658, 669-670), 이러한 의혹에 대해 벌린과 아롱은 직접 부인한 바 있으며 손더스의 주장 자체도 신뢰성이 낮은 증언이나 추측에 기반하고 있어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Cherniss 2013, 74-76; Stewart 2020, 110-111).

떨어졌고 개인의 권리 개념에만 집중하는 편협성을 띄게 되었다는 주장(Rosenblatt 2023, 374-378)에서부터 ‘냉전 자유주의’는 전체주의에 대한 지나친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전 시기의 자유주의가 발전시켜온 소중한 전통인 인간의 발전성과 주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저버리고 자유의 지평을(주로 소극적 자유의 영역으로) 축소시켰으며 결국에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발흥하는 길을 터주었다는 주장(Moyn 2023)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전통이 20세기 초중반의 시기를 거치며 ‘회고적 창조’(retrospective invention)의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체주의와 냉전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지성사 연구자들이 동의할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e.g., Bell 2014). 하지만 자유주의 전통이 냉전시기 자유주의 지식인들에 의해 집단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거나 냉전 자유주의자들이 이전의 전통을 ‘배반’했다는 서사는 ‘냉전 자유주의자’라는 일군의 정체성과 목표를 공유한 지식인 그룹이 일관되고 조직된 형태로 특정한 이념적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일종의 과장되거나 왜곡된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¹⁰⁾ 그리고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어쩌면 이 용어가 애초에 등장한 목적에 부합하게도)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를 재생산하는데 여전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 혹은 개념은 전적으로 무용하거나 유해하긴 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앞서 살펴보았듯 이 용어가 대체로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으며 전후 자유주의 전통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편향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데 손쉽게 이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것을 개념적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예컨대 단지 냉전시기의 맥락 속에서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여겼던 이들(예컨대 이사야 벌린, 칼 포퍼에서 시작해서 시드니 후이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을 모두 ‘냉전 자유주의’의 틀에 한데 묶어서 마치 이들이 하나의 관점

10) 모인의 주장에 대한 최근의 주요한 반박으로는 Craiutu(2024), Müller(2024) 등 참조.

이나 철학을 공유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이 항상 부주의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개념의 부적절한 사용례의 존재가 그 개념 자체의 무용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 역시 과도한 결론일 것이다. 특히나 ‘냉전 자유주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 전통의 성격 및 그것이 남긴 사상적·정치적 유산의 현재적 의미와 관련해서 현재진행형의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¹¹⁾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수반하는 여러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냉전’과 ‘전체주의의 위협’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전후시기 서구의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이 일정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형태의 자유주의적 비전을 추구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이며,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당대 지식인들이 가졌던 이념적 다양성과 구체적 차원에서의 뉘앙스 차이를 인정하며 주의 깊게 사용되는 한) 이러한 역사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유용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¹²⁾

실제로 냉전시기 자유주의 전통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최근의 정치사상사 분야의 연구들은 ‘냉전 자유주의’에 대한 기존의 도식적 설명이나 이미지를 넘어서서 개별 사상가들이 씨름했던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들 속에 그들의 사유와 행위를 맥락화하고 그들이 제시했던 이상의 복합적 층위와 미묘한 뉘앙스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밀러는 2008년 논문에서 냉전과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응하는 커다란 목표 아래에 전후시기 미국과 유럽에서 ‘냉전 자유주의’라고 지칭할 만한 공통의 이념과 정치적 감수성(political sensibility)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11) ‘냉전 자유주의’의 현재적 함의와 관련된 최근의 논쟁사례로는 *Dissent Magazine*에서 벌어진 Mattson(2021)과 Brenes and Steinmetz-Jenkins(2021) 사이의 논쟁을 참조.

12)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용어로 ‘냉전 자유주의’와 더불어서 ‘전후 자유주의’, ‘20세기 중반 자유주의’ 등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수반하는 오해를 줄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냉전시기 자유주의’ 등의 변형된 표현도 맥락에 따라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는 냉전 자유주의가 일차적으로는 반(反)마르크스주의 — 특히 그것의 결정론적 역사철학에 대한 반대 — 라는 공통된 이념전선으로 뭉친 ‘전투적’ 형태의 자유주의였다고 말한다. 나아가 냉전 자유주의는 ‘전체주의’라는 인류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반(反)자유주의적 이념의 등장과 그와 결부된 ‘잔인성’(cruelty)과 ‘극악무도함’(atrocitiy)의 지배가 ‘열린사회’라는 인간문명의 본질적 가치를 실존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았다. 이러한 점에서 밀리는 냉전 자유주의가 — 정치철학자 슈클라(Judith Shklar)가 제안한 개념인 — ‘공포의 자유주의’(liberalism of fear)의 특성을 띠었다고 보았다.

또한 ‘냉전 자유주의’의 반극단주의 성향을 강조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벌린이나 레이몽 아롱을 예로 들며 이들의 정치적 혹은 이념적 입장이 하이에크 등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보수화된 반공자유주의(혹은 자유지상주의)와는 분명히 달랐다는 점을 강조한다(Cherniss 2021; Craiutu 2017; Müller 2008; 2019; Stewart 2020). 다음 장에서 (벌린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당대의 반(反)전체주의 전선에 동참했던 자유주의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자유개념과 시장경제, 복지국가 등의 문제에 있어서 중도적이거나 중도좌파적 입장에 공감을 표한 이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같은 냉전시기 자유주의 진영 내부의 사상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은 ‘냉전 자유주의’에 덧씌워진 편향된 이미지를 교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냉전 자유주의의 내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자유주의’ 전통 자체가 다양한 관념과 실천을 포괄하는 ‘대가족’(extended family)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포괄주의적 시각과도 부합한다(Bell 2014; Kahan and Ewa 2017). 이와 동시에, ‘자유주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 전통의 경계가 상당히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논쟁적임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자유주의 전통의 형성과 발전이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정치사상사 연구에서) ‘냉전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일군의 사상가들을 성

급하게 일반화하고 단순화하는 개념적 도구가 아니라 ‘냉전’이라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된 현상에 직면해 유사한 문제의식과 생각을 상당부분 공유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지적 유산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역사적 맥락의 일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냉전 자유주의’ 개념 사용을 둘러싼 논쟁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발전시킨 사유들 가운데 오늘날의 맥락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함의를 가진 내용들이 폭넓게 존재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자들마다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예컨대 자유에 대한 위협에 맞서는 원칙에 기반한 ‘전투적 신념’(fighting faith)에서부터(Müller 2018) 정치적 무자비함(ruthlessness)이라는 극단주의에 맞서는 절제된 자유주의(tempered liberalism)와 자유주의적 에토스(Cherniss 2021), 그리고 정치적 중용과 균형감각(Craiutu 2017) 등에 초점을 맞춘 전후시기 자유주의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극단주의와 광신주의적(fanatical) 정치라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강조점은 다양하지만 최근의 냉전시기 사상사 연구는 그동안 망각 되거나 오해 되어왔던 20세기 중반 자유주의의 복합적이고 넓은 지평에 대한 맥락적이고 확장된 이해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시기 지식인들의 위기대응과 방향모색이 현재의 시점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날 냉전시기 자유주의 담론의 핵심인물 가운데 하나인 이사야 벌린을 중심으로 당대 자유주의자들이 직면했던 도전과 대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졌으며, 이것이 전후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III. 전후 자유주의의 도전과 방향모색: 이사야 벌린과 절제된 이상의 추구

앞장에서 살펴보았듯 냉전시기 자유주의 전통을 보수화되고 협소화된 형태의

타락한 혹은 위선적인 자유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당대 자유주의 전통이 가진 복잡성과 다원성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마치 이 시기의 자유주의자들이 일군의 강경파 반공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과 같은 왜곡된 이미지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전후시기 자유주의 지식인 그룹 내부에서도 매카시즘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와 정치적 실천이 존재하였고, 자유진영 일각의 ‘승리주의’(triumphalism)나 유토피아적 낙관주의를 경계하며 절제와 균형감각, 자기성찰과 비판의 중요성을 전후 자유주의의 핵심요소로 지속적으로 강조한 견해 또한 형성된 바 있다.¹³⁾ 그런가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후 자유주의가 (19세기 자유주의가 발전시켜온) 유토피아적 신념을 상실하고 숙명론적 태도에 빠져서 방향감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내부로부터의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¹⁴⁾ 나치즘과 파시즘의 트라우마 속에서 반(反)전체주의라는 강력한 목표가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20세기 중반의 시기는 외면적으로는 명확한 컨센서스와 단일한 지향점이 당대 자유주의 전통 속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이 시대적 과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했던 실제적 모습은 일치된 일사불란함보다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경합하고 실천되는 복잡성과 포괄성을 보여준다.

전후시기 자유주의 지식인들 사이의 복합적이고 논쟁적인 관계는 반공주의와 매카시즘에 대한 입장을 두고 표출된 상당한 견해차에서도 특히 잘 드러난다. 이 대립의 주된 무대는 미국이었으며, 위스콘신주 출신의 상원의원 조셉 매카시(Joseph McCarthy)는 격화되는 냉전 대립과 중국의 공산화, 한국전쟁 등으로 고조된 대중적 불안감에 편승하여 광신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공산주의자 색출 및 척결운동을 주도하였다.¹⁵⁾ 미국 국무부와 CIA를 비롯하여 정부와 학계, 언론계

13)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전후 자유주의자로 라인홀드 니부어(1892-1971)를 들 수 있다.

14)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저작 가운데 하나로는 주디스 슈클라(Judith Shklar)의 *After Utopia: The Decline of Political Faith* (1957)이 있다.

15) 매카시즘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s://www.britannica.com/event/McCarthyism>.

등에 공산주의자들이 광범위하고 은밀하게 침투해서 간첩행위를 하고 있다는 매카시의 타겟(target)에는 언론인 제임스 웨슬러(James Wechsler)나 역사학자이자 대중지식인 아서 슐레진저(Arthur Schlesinger Jr.)와 같은 당대의 저명한 미국 전후시기 자유주의자들도 포함되었다(Mattson 2004, 52-59, 69-70).

매카시즘의 이같은 광범위한 공산주의자 지목 및 사상검증활동은 비(非)공산주의 노선을 택했던 다수의 전후시기 자유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균열점, 즉 ‘자유주의적 반공주의’와 ‘우파 반공주의’라는 균열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은 1950년대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자유주의 지식인 그룹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 문화자유회의>(American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 줄여서 ACCF) 내부에서도 표출되었다. ACCF 내에서도 강경파 반공주의자였던 언론인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 등은 매카시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그룹 내부에서 공유했고, 이 단체의 주축 가운데 한 명이었던 철학자 시드니 훅(Sydney Hook)은 공산주의자들이 교육현장에서 축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반면에 반(反)공산주의라는 큰 노선에 동의하면서도 매카시 등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반공운동이 자유로운 생각과 토론이라는 열린사회의 핵심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비판하는 지식인들도 ACCF 내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관련하여 라인홀드 니버는 “광란에 가까운 반공주의는 증오의 기질이라는 측면에서 공산주의 그 자체와 매우 닮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매카시즘의 피해자이기도 한) 슐레진저나 웨슬러는 공산주의 신념을 가진 교육자들이 학생들과 나아가 사회에 끼치는 위험은 실질적으로 미미한 반면 매카시즘의 광풍이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위축시킴으로서 발생하는 해악은 상당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슐레진저는 간첩행위 등의 구체적인 반(反)국가활동에 연루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침착함과 균형, 판단력 등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웨슬러는 과도한 사상검증의 해악을 우려하며 (위험한 행위는 마땅히 규제되어야 하지만) ‘생각’(ideas) 그 자체를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Mattson 2004, 66-74).

전후시기에 자유진영 안과 밖에서 형성되었던 극단주의적 이념 혹은 사회적 분위기는 벌린과 니부어, 슐레진저, 아롱 등과 같은 전후시기 주요 지식인들이 이같은 극단주의에 맞서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는 방향을 모색하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 당대의 가장 핵심적인 지적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전체주의’가 서구 문명에서 발생한 이유에 관한 것이었고, 전후시기의 주요 지식인들은 대중사회와 산업사회라는 현대의 새로운 상황이 초래한 사회적·심리적·이념적 차원의 문제들에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전체주의의 기원』(1951)에서 아렌트(Hannah Arendt)는 나치즘과 같은 극단적 이념이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대량실업의 발생 등으로 인해 ‘뿌리뽑힘’과 ‘잉여화’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대중들이 겪게 된 불안감(anxiety)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Arendt 1994[1951], 474-479).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벌린은 동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광적인 열정의 이면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중들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으며(Berlin 2014, 202-222), 슐레진저 또한 사회적 의미를 상실한 외롭고 불안한 개인들이 전체주의에 빠져들어가는 문제에 전후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chlesinger 1998, 1-10, 243-256).

이들의 마르크스주의 비판 역시 반(反)극단주의라는 넓은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다. 『지식인의 아편』에서 아롱은 마르크스주의를 일종의 ‘메시아주의’이자 ‘정치적 신화’로 규정하며 이러한 특성들이 이 이념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독단주의와 광신주의, 정치적 폭력의 정당화 등으로 빠져들기 쉽게 만든다고 주장했다(Aron 2022, 123). 「20세기의 정치사상」을 비롯하여 여러 글에서 벌린은 마르크스주의를 일원론(monism)과 결정론(determinism)의 극단화된 형태로 제시하며 이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인간존엄의 기본원리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Berlin 2014). 그러나 (강경파 반공주의자들과 달리) 벌린이나 아롱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공산주의 비판에 있어서도 일정한 절제와 관용, 이해의 태도를 견지했다(Müller 2019, 52).

이와 관련해 벌린은 “악마와 싸울 때는 악마의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와 같은 강경한 태도가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치에서 지나친 열광과 절제되지 않은 태도는 독단적이고 교조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위험성을 동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Craiutu 2017, 87에서 재인용).

사회경제정책의 분야에 있어서도 독선적 태도와 교조주의는 커다란 경계의 대상이었다. ‘적극적 자유’라는 전체주의적 관념에 맞서 ‘소극적 자유’라는 가치를 배타적으로 — 그리고 심지어 교조적으로 — 옹호한 것으로 흔히 (잘못) 알려진 벌린의 경우에도 (뉴딜정책과 독일 나치즘과의 전쟁 등을 이끈)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유사회를 향한 헌신과 기여를 찬양하며 시민들의 적정수준의 삶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직접적인 도덕적 책임”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Berlin 1997, 636), ‘소극적 자유’라는 개념이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의 무조건적 정당화로 해석되는 것에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실제로 벌린은 아동들이 탄광에서 목숨을 잃거나 공장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신체·정신적 손상을 입는 일들을 언급하며 경제적 자유방임주의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가들에게 집중된 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비인간적인 결과를 광범위하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Berlin 2013b, 19-20). ‘개인적 자유’라는 가치의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그였지만 오직 자유가 절대적이거나 우월한 가치라고 내세우지는 않았으며 ‘평등’, ‘정의’, ‘자비’, ‘자기결정권’ 등과 같이 다양한 가치들 가운데 어떠한 균형과 타협점을 선택할 것인가는 판단주체의 몫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믿었다(Berlin 2018[1966], 272-273).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도 전후시기 벌린에게 가장 지독한 형태의 위협은 ‘인간 영혼의 엔지니어링’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본 스탈린 방식의 전체주의적 통치였다. 하지만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의 확산과 전문가에 의한 통치영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현대의 대부분의 사회들에서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사회의 검열과 통제에 의해 억눌릴 위험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 또한 그의

문제의식 속에 상존했다(Berlin 2014, 203-204). 1949년부터 미국 대학들에서 러시아 사상을 강의하였던 벌린은 매키시즘이 전개되는 상황을 내부로부터 직접 목격한 바 있으며, 자유진영 내부의 교조화와 독단화가 지적 활동과 토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Ignatieff 2012, 320-327).

좌우 이념적 스펙트럼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극단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역사적 경험은 전후시기 지식인들로 하여금 전체주의에 맞서 자유사회의 가치를 수호하는 과업이 단지 제도나 구조와 같은 사회적 시스템 차원의 변화나 개혁의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에토스와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함양하고 이를 전후 자유주의 전통의 핵심적 요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의 인식으로 이어졌다. 균형감각, 자기비판, 겸손함, 온건한 태도(moderation), 자기통제, 반(反)유토피아주의 등과 같이 과도한 이념적 열정을 견제하고 조절하는 정치적·윤리적 감수성이 이 시기 핵심적인 자유주의 지식인으로 여겨지는 니부어, 슐레진저, 벌린, 아롱 등에 의해 — 물론 각 인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 이해되고 실천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¹⁶⁾ 개신교 신학자이면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0년을 기점으로 사회주의자에서 자유주의자로 전향해 전후시기 미국의 핵심적 진보지식인 단체 <미국 민주행동연합>(Americans for Democratic Action, 줄여서 ADA) 창설 등의 활동을 주도했던 니부어는 인간의 본질적 불완전성(imperfectibility)과 오류가능성(fallibility)을 강조하며 여기서 기인하는 악(evil)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 및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니부어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을 도덕적 순수주의(moral purism)의 입장에서 반대했던 평화주의자(pacifist)들의 절대주의적 도덕관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는 현존하는 악(예컨대 파시즘)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도 양심적이고 겸손한 태도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정치적 실천에 있어서는 독선적인

16)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을 깊게 공유하지 않았던 (하지만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로 인식했던) 당대의 지식인들로 칼 포퍼나 제이콥 탈본 등의 지식인들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전후 자유주의 전통의 내적 다양성과 넓은 지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지와도 부합한다.

(self-righteous) 자세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Mattson 2004, 17-19, 86-87).

소련식 전체주의 체제와 탐욕스러운 자본가 계급에 포획된 미국의 금권정치(plutocracy)라는 두 극단(extreme) 사이에서 진보적 자유주의 — 슐레진저의 표현에 따르면 ‘새로운 급진주의’(new radicalism) — 의 길을 모색하던 슐레진저에게 있어서도 절제되고 자기성찰적인 에토스를 강조한 니부어의 메시지는 큰 울림을 주었다.¹⁷⁾ ‘냉전 자유주의’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으로 통용되는 1949년 저작 『역동적 중심』(*The Vital Center*)에서 슐레진저는 인간적 완벽성에 대한 지향(human perfectibility)과 인간진보의 필연성을 전제해온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의 낙관주의적 신념을 비판하며 이러한 유토피아적 신념은 (전후시기에) 당면한 전체주의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신에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의 불완전성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겸허함(a sense of humility), 그리고 다양한 가치와 기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타협의 자세이다(Schlesinger 1998, 170, 174, 254). 이후에 추가된 서론에서 그는 니부어를 인용하며 “인간의 연약함(frailty)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믿음보다 민주주의에 더 견고한 토대를 제공했다”라며 교만이나 자기도취를 경계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Schlesinger 1998, xiii).

20세기에 등장한 과격하고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들이 인간의 윤리적 삶과 도덕적 감수성에 미치는 커다란 위협에 대해 심도깊게 탐구하였으며 전후시기 미국과 유럽의 비공산주의적 자유주의 운동(NCL)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벌린 또한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니부어의 신념에 깊게 공감했으며, ‘최종적 해답’과 ‘최종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이상을 극도로 경계했다(Cherniss 2013, 70-71).¹⁸⁾ 벌린이 ‘일원론’(monism) 혹은 ‘결정론’(determinism)이라는 개

17) 자유주의 역사가로서 전후시기에 가졌던 슐레진저의 문제의식에 관해서는 김일련(2023)의 최근 논문을 참고할 것.

18) 벌린의 NCL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슐레진저의 언급은 다음을 참고: Schlesinger(1998, 168).

념을 통해 비판했던 완벽주의적 이상의 위험성은 그의 전후시기 사유와 저작을 관통하는 핵심적 문제의식이었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망라하여 ‘승고하고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이라는 명목 하에 잔인한 수단들이 대대적으로 실행되고 정당화되던 20세기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러시아 태생의 유태인으로 박해를 피해 유년기에 영국으로 이주해 정착했고 2차대전 중에 러시아에 남은 친가와 외가가 나치에 의해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은) 별린은 이른 시기부터 평생에 걸쳐 폭력, 잔인함, 부정의, 압제, 순응, 인간존엄, 품위(decency), 자유 등과 같은 도덕적 문제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게 되었다(Berlin 2013a, 3-4; Ignatieff 2012, 59-60, 213-214). 폭력과 도덕불감증(moral blindness) 등의 문제를 사상사(the history of ideas)의 관점에서 천착한 별린은 잔인함, 세뇌, 혁명 등 무고한 개인에게 무제한의 희생을 요구하고 정당화하는 정치적 교의(doctrine)의 이면에는 오직 이러한 무제한적 수단의 사용을 통해서만 ‘완벽한 삶’ 혹은 ‘완벽한 사회’가 도달가능하다는 ‘엄청난 지적 오류’(enormous intellectual fallacy)가 내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Berlin 2013b, 26-28).¹⁹⁾

별린의 이러한 도덕적 감수성과 반(反)일원론적 입장은 별린 스스로가 회고하듯이 (그가 속해있던 20세기 초중반 영국 지성계에서 유행하던) 논리실증주의나 절대적 확실성의 추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엄밀한 논리적 검증이나 철학적 확실성이라는 틀 속에 한정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근대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단순한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데올로기나 특정한 관념 —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공리주의 등 — 이 인류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을 줄 것이라는 믿음은 이미 너무 많은 위험한 길로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들을 인도해왔다. 따라서 (별린이 보기에) 이러한 비극적인

19) 이 주제와 관련해 별린은 여러 곳에서 ‘궁극의 오믈렛’을 위해 희생되는 ‘깨진 계란’의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 “all the justifications of broken eggs for the sake of the ultimate omelette”(e.g., Berlin 2013b, 28). 여기에서 궁극의 오믈렛은 최종적이고 단일한 목표를, 깨진 계란은 이 과정에서 희생을 요구받는 개인을 의미한다.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되는 궁극의 목표가 아니라 각각의 주체가 선택하고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목표를 선정하고 추구하는 과정은 우리 스스로를 (때로는) 예측불가능한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며 그 과정과 결과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다(Berlin 2013b; 2018, 275-276).

교조적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들이 ‘완벽한 사회’(perfect society)라는 위험한 이상을 지향했다면, 별린을 비롯한 전후시기 주요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이같은 과열된 열정을 경계하며 ‘적정수준의 사회’(decent society)라는 대안적 형태의 절제된 이상을 추구했다. 궁극적인 하나의 가치에 대한 믿음(즉, 일원론)과 인간 행위의 이면에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믿음(즉, 결정론)으로 무장한 갖가지 형태의 완벽한 사회에 대한 지향과 대조적으로, 별린의 입장이 잘 보여주듯 적정수준의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함을 의미했다: 역사의 흐름과 방향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며 따라서 역사의 전개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범위의 지식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인도적이고 끔찍한 상황의 도래를 막도록 노력하는 ‘불안정한 균형’을 멈추지 않고 추구하는 것이다(Berlin 2013a, 18-19).²⁰⁾

검손과 절제력, 균형감각 등이 ‘적정수준의 사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유주의적 감수성으로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두고 있는 ‘decent society’라는 별린의 관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를 우리말로 옮김에 있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하며 이 용어가 원래의 문맥에서 어떤 다층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형용사로서 ‘decent’ 혹은 명사형으로서 ‘decency’라는

20) 별린의 자유주의에서 “decency”가 가지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는 Cherniss(2021, 194)를 참고할 것.

용어는 그것이 위치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는 넓고 다층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먼저,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형용사 ‘decent’의 명사형인 ‘decency’는 현대영어에서 일반적으로 (1) 행동 또는 태도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적절성, (2) 겸손(modesty)이나 섬세함(delicacy) 등과 관련한 사회적 관념에 대한 순응, (3) 개인의 지위에 부합하는 생활수준을 따르는 것 등의 의미를 가진다.²¹⁾ 사전적 정의에서도 잘 드러나듯 이 용어는 개인의 태도나 성격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관계적이고 맥락적으로 과도하거나 극단적인 상태를 피하고자 하는 성향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전후 자유주의 전통의 맥락에서 ‘decency’라는 용어는 (처니스의 설명을 참조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 절제된 행동 등과 같은 개인의 윤리적 태도와 더불어 정치적 차원에서는 부정의나 고통, 인격모독이나 빈곤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지향을 동반했다(Cherniss 2021, 19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decent society’라는 전후시기 서구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지향은 도덕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영역 등 존엄한 삶과 긴밀히 연관된 영역들에 있어서 적정수준의 인간품격이 존중되는 사회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decent society’에 대응하는 우리말로는 가장 먼저 ‘품격있는 사회’ 혹은 ‘품위있는 사회’라는 선택지가 떠오르지만, 앞서 설명한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압축적이면서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정수준의 사회’라는 표현이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²²⁾ 왜냐하면 우리말의 ‘품격’이나 ‘품위’는 다소 높은 수준의 (즉, 고상한) 격식이나 위엄과 관련된 상태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전후시기 자유주의 전통이 지키고자 노력했던 ‘기본적 적정선’ 혹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도덕적·사회적) 상태’와는 다소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적정수준

21) <https://www.oed.com/search/dictionary/?scope=Entries&q=decency>

22) 존 롤스의 정치철학에 관한 논의에서 ‘decent society’를 ‘적정수준의 사회’로 번역한 앞선 사용례로는 장동진(2001) 등 참조.

의 사회'라는 번역어 또한 무엇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모호함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완벽한 사회'라는 극단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에 대응하는 관념이며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선형적이거나 과학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험적이고 유동적인 형태로 (벌린의 표현에 따르면 '위태로운 균형'에 해당하는) 존재한다는 맥락을 함께 고려한다면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 전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번역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정수준의 사회'라는 절제된 이상은 앞서 살펴본 자유주의적 감수성 및 정치윤리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특히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입장을 가진 이들의) 절대적 확신을 경계하며 벌린은 어떤 선택과 행위이든 오류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도한 확신에 기반한 행위는 무고한 이들의 불필요한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다원적 가치에 기반한 적정수준의 사회에는 절대적 가치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극단적 고통'도 공적 수단으로 정당화되기 힘들다. 물론 때때로 가치의 충돌 상황에서 불가피한 타협과 선택이 필요하겠지만, '확신에 기반한 궁극적 해법'이 아닌 '불안정한 균형'(an uneasy equilibrium)의 지점을 찾아나가는 자세가 '과도한 열정'을 제어할 수 있는 적합한 자세이다. 이에 필요한 덕목으로 벌린은 '겸손함'과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지식의 '제한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상황에 따른 유연성 등을 제시한다(Berlin 2018[1966], 275-276).

다원주의적 가치관과 절제된 감수성에 기반한 이같은 형태의 자유주의를 벌린은 "다소 정돈되지 않은 자유주의"(a rather untidy liberalism)라고 규정한다. 과도한 획일성과 일관성에 집착하는 교조화된 신념들이 비인도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하며 벌린은 "인간성이라는 뒤틀린 목재(the crooked timber of humanity)로 똑바른 것이 만들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한 칸트의 언명을 자주 인용했다.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의 본성과 인간행위의 불완전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잘 정돈된 해법을 지향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사회의 본성에 거스르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이다(Berlin 2013a, 19-20).²³⁾ 불안정한 균형과 타협,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지향, 그리고 현대사회의 점증하는 획일성과 사회공학적 경향을 제어할 수 있는 ‘건전한 제동장치’로서의 절제된 자유주의는 전후시기의 자유주의적 지적 전통이 ‘반공산주의’라는 좁은 프레임으로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는 복잡성과 넓은 지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맺음말: 전후 자유주의 전통의 현재성과 함의

전체주의 체제의 부상과 함께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선택이 강요되던 시대, 벌린을 비롯한 일군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겸허한 태도를 강조하며 회의주의, 다원주의, 온건함 등의 가치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이상과 적정수준의 사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의 사상은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자, 매카시즘의 광풍 속에서 경직되어 가는 서구의 전후시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유진영 내부의 비판으로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이념적 광신과 극단화, 전체주의적 사고의 확산 등에 맞서서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키고자 분투하였던 이들의 고민과 실천으로부터 우리는 오늘날 다시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양극화와 극단화, 그리고 여기에서 기인하는 현대 자유주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훈과 이론적 자원을 탐색할 수도 있다.

물론 전후 자유주의 전통 또한 당대의 특수한 상황 및 문제의식 하에서 발전된 것이므로 이 전통이 강조하는 측면을 탈맥락화하여 오늘날의 상황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역사적(ahistorical)인 태도이자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관념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일종의 ‘현재주의’(presentism)의 오류를 범하게 될 위험도

23) 유사한 맥락에서 정치이론가 조슈아 처니스는 벌린의 자유주의를 “절제된 자유주의”(tempered liberalism)의 한 전형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Cherniss 2021).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²⁴⁾ 하지만 전후시기 자유주의 전통이 오늘날 자유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이 시기 지식인들이 가졌던 극단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비롯하여 정치적 광신주의와 독선주의 등의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깊은 사유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갈등의 심화와 정치규범적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 나가야 할 것들과 상당한 공유지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 전통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섬세하고 주의 깊게 재조명할 의의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로 다시 눈을 돌려서, 별린을 중심으로 한 전후시기의 반(反)극단주의를 내세운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재조명이 우리사회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및 연구에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별린이 보여준 절제와 온건함 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한국적 토양에서 적절하게 받아들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세 가지 지점을 강조하고자 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서구사회의 오랜 자유주의 전통에 비교할 때,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에 의한 지배를 경험해온 우리사회에서 자유주의적 문화와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진 역사는 아직 짧다고 말할 수 있다. 국내 학계에서도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서구의 자유주의 전통 및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자유주의 전통의 수용과 발전에 관한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해 오고 있지만, 현대 자유주의 전통의 이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냉전’을 배경으로 한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본격적인 사상사적 연구는 상당부분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연구사적 공백은 전후 자유주의 전통 및 이를 계승하고 있는 오늘날의 자유주의를 ‘냉전 반공주의’나 ‘보수적 시장주의’라는 단편적인 이미지로 등치시키는 인식 및 담론으로도 이어지는 문제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극단주의에 맞서면서 적정수준의 사회를 지향

24) 옥스포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의 정의에 따르면 ‘현재주의’는 (주로 역사의 해석에 있어서) 현재 혹은 현재적 태도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진 편견을 뜻한다. <https://www.oed.com/search/dictionary/?scope=Entries&q=presentism>

하고자 했던 전통의 재조명을 통해 당대 자유주의의 복합적이고 넓은 지평을 보여주고자 한 우리의 연구는 앞선 문제점들에 대한 하나의 교정의 노력으로서 함의를 갖는다.

둘째, 이 논문에서 살펴본 별린을 중심으로 한 전후 자유주의는 지금까지 국내의 담론장에서 진지한 연구 및 관심의 바깥에 머물렀던 ‘자유주의적 감수성’ 및 ‘자유주의적 기풍’의 형성이라는 20세기 자유주의의 핵심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앞선 논의를 통해 우리가 살펴본 별린이나 솔레진저, 니부어 등의 예에서 잘 드러나듯, 이들은 전후시기의 규범적·이념적·정치적 폐허 위에서 ‘적정수준의 사회’를 재건하는 과제의 복잡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과 성찰적이고 유연한 태도, 그리고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강조한 적정수준의 사회의 이상에 필수적인 자유주의적 에토스는 (왈저의 분류를 따르자면) 하이에크로 대표되는 ‘교조화된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 전통(혹은 현재의 시점에서 ‘자유지상주의’로 분류되는 이념적 입장)과 별린으로 대표되는 다원주의적이고 반(反)극단성을 추구하는 ‘리버럴한 감수성’을 핵심으로 하는 탈(脫)이념적 형태의 자유주의 전통 사이의 중요한 분화가 이미 전후시기에 자유주의자를 표방하는 지식인 그룹 내부에서 뚜렷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전후 자유주의에 관한 담론에서 종종 전자의 영향력은 과대해석이 되는 반면에 후자의 전통은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오늘날 20세기 자유주의 전통에 가해지는 상당수의 (앞서 살펴본) 비판들은 이 전통의 복합성과 다층성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나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적정수준의 사회’라는 반(反)유토피아주의적 이상을 추구했던 별린, 솔레진저, 니부어 등을 중심으로 한 전통의 재조명은 극단주의로부터 자유주의적 삶의 방식과 가치를 지키는데 있어 절제되고 원칙 있는 윤리의식 및 균형감각, 그리고 시민성의 차원에 대한 깊은 고려와 강조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별린을 중심으로 한 전후 자유주의에 대한 재조명이 오늘날 한국의 확산

되는 이념적 극단주의 풍조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유주의를 특정한 형태의 고정된 독트린이 아닌 유연하고 열린 정치적 사고와 실천의 태도로 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주의를 옹호해 온 사상적 자원들에 대한 연구 및 담론을 활성화하며 현재 우리에게 적합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자유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논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대 자유주의의 핵심적 논평가 가운데 하나인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가 최근 지적하였듯, 오늘날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이해하는 넓은 전통은 (사회주의 등과 같은 다른 이념들과는 달리) ‘이념’(-ism)이라는 특정한 고정된 틀 속에 가두어질 수 없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독단주의와 광신주의라는 지난 세기의 이념적 광풍에 대항해 온 역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점이다(Walzer 2023). 앞선 논의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전후 자유주의 전통도 구체적이고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맥락(예컨대 19세기의 낙관적 자유주의 전통의 몰락, 민주주의와 반(反)자유주의의 결합, 탐욕적 자본주의가 초래한 사회문제들, 빈곤과 공황이 초래한 정치적 문제들 등) 속에서, 그리고 ‘완벽한 사회’를 추구한 극단주의자들에 대항하여 형성된 유연성과 개방성, 관용과 적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대 사상가들의 문제의식 및 사유와 실천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을 통해 자유주의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놓인 실천적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춘. 2021. 『반공자유주의: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낙인』. 서울: 필요한책.
- 김민혁. 2023. “자유주의 전통의 다양성과 논쟁성: 자유주의 위기담론 및 자유주의 연구방법론 고찰.” 『서강인문논총』 66집, 341-370.
- 김일년. 2023. “미친놈과 나쁜 놈의 발견: 리처드 홉스테터, 아서 솔레진저, 그리고 미국 자유주의 역사학의 형성.” 『인문과학』 89집, 5-44.
- 문지영. 2011. 『지배와 저항: 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서울: 후마니타스.
- 박동천. 2020. “이사야 벌린: 다원적 자유주의의 실천.” 『현대정치학의 위기와 비전』, 237-264. 서울: 아카넷.
- 유홍림. 2019.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의 ‘현실감각.’” 『정치사상연구』, 25집 2호, 39-67.
- 이나미. 2021.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서울: 책세상.
- 장동진. 2001. “롤즈의 국제사회 정의관:[만민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1집 4호, 315-336.
- 전보람. 2023. 『이사야 벌린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전재성. 2005.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ebuhr)의 기독교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사상: 자기에의 인간본성과 국제정치에서의 실천지(實踐智).” 『국제지역연구』, 14권 4호, 1-32.
- 최장집. 2011.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최태욱(편)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66-107. 서울: 폴리테이아.
- Arblaster, Anthony. 1987.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Liberalism*. Oxford: Basil Blackwell.
- Arendt, Hannah. 1994[1951].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edition. San Diego: Harcourt.
- Aron, Raymond 저. 변광배 역. 2022. *L'opium des intellectuels*. 『지식인의 아편』. 서

출: 세창출판사.

- Bell, Duncan. 2014. "What is Liberalism?." *Political Theory* 42(6): 682-715.
- Berlin, Isaiah. 1997. *The Proper Study of Mankind: An Anthology of Essays*. London: Chatto and Windus.
- Berlin, Isaiah. 2013a. "The pursuit of the idea." In Hardy, Henry(eds.). *The Crooked Timber of Humanity: Chapters in the History of Ideas* (Secon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lin, Isaiah. 2013b. "My intellectual path." In Hardy, Henry(eds.). *The Power of Ideas* (Secon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lin, Isaiah 저. 박동천 역. 2014. *Liberty: Incorporating Four Essays on Liberty*.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서울: 아카넷.
- Berlin, Isaiah. 2018[1966]. "The lessons of history." In Cherniss, Joshua L, and Steven B. Smith(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Isaiah Berlin*.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nes, Michael and Daniel Steinmetz-Jenkins. 2021. "Legacies of Cold War Liberalism." *Dissent* 68(1)(Winter).
- Cherniss, Joshua L. 2013. *A Mind and Its Time: The Development of Isaiah Berlin's Political Thou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erniss, Joshua L. 2021. *Liberalism in Dark Times: The Liberal Ethos in the Twentiet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raiutu, Aurelian. 2017. *Faces of Moderation: The Art of Balance in an Age of Extrem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raiutu, Aurelian. 2024. "Liberalism, the happy exception". *History of European Ideas* 50(4): 679-685.
- Deneen, Patrick J. 2018. *Why Liberalism Fail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Ignatieff, Michael 저. 이화여대 통번역연구소 역. 2012. *Isaiah Berlin: a Life*. 『이사야 벌린』.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Isaac, Jeffrey C. 2002. "Rethinking the Cultural Cold War." *Dissent*. <https://www>.

- dissentmagazine.org/article/rethinking-the-cultural-cold-war/ (검색일: 2024. 01. 15)
- Kahan, Alan S. and Ewa Atanassow. 2017. *Liberal Moments: Reading Liberal Texts*. New York, NY: Bloomsbury Publishing.
- Mattson, Kevin. 2004. *When America Was Great: The Fighting Faith of Postwar Liberalism*. New York: Routledge.
- Mattson, Kevin. 2021. "Virtues of Cold War Liberalism: A Response to Michael Brenes and Daniel Steinmetz-Jenkins." *Dissent* (March 29). https://www.dissentmagazine.org/online_articles/virtues-of-cold-war-liberalism/ (검색일: 2024: 01. 22).
- Moyn, Samuel. 2023. *Liberalism against Itself: Cold War Intellectual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üller, Jan-Werner. 2008. "Fear and Freedom: On 'Cold War Liberalis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7(1): 45-64.
- Müller, Jan-Werner. 2018. "What Cold War Liberalism Can Teach Us Today."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November 26). <http://www.nybooks.com/online/2018/11/26/what-cold-war-liberalism-can-teach-us-today/> (검색일: 2024. 01. 25).
- Müller, Jan-Werner. 2019. "The Contours of Cold War Liberalism (Berlin's in Particular)." In Müller, Jan-Werner(eds.). *Isaiah Berlin's Cold War Liberalism*, Singapore: Palgrave Macmillan.
- Müller, Jan-Werner. 2024. "Liberalism's forever crisis." *Project Syndicate* (January 5). <https://www.project-syndicate.org/onpoint/opponents-and-defenders-of-political-liberalism-by-jan-werner-mueller-2024-01> (검색일: 2024.01.25).
- Popper, Karl. 1986. "Utopia and Violence." *World Affairs* 149(1)(Summer).
- Rosenblatt, Helena 저. 김승진 역. 2023. 『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 공동체의 도덕, 개인의 윤리가 되다』. 서울: 니케북스.
- Saunders, Frances Stonor 저. 유광태 외 역. 2016.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서울: 그린비.

- Schlesinger, Arthur M. 1998. *The Vital Center: The Politics of Freedom*.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Shklar, Judith N. 1957. *After Utopia; the Decline of Political Fait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klar, Judith N. 1998. "The Liberalism of Fear." In Hoffmann, Stanley(eds.). *Political Thought and Political Thinker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wart, Iain. 2020. *Raymond Aron and Liberal Thought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zer, Michael. 2023. *The Struggle for a Decent Politics: On "Liberal" As an Adject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투고일: 2024.06.12. 심사일: 2024.07.19. 게재확정일: 2024.07.22.

A study on the anti-extremist tradition of postwar liberalism: on the concept of ‘Cold War liberalism’ and Isaiah Berlin’s thought

Kim, Minhyeok | Institute of Public Governance, Kyung Hee University

Cho, Dae Keun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Korea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ideas — the anti-extremist and moderate liberal tradition developed in the postwar period, which was formed by a group of mid-20th century Western thinkers, most notably by Isaiah Berlin, who struggled to defend liberal values and culture amidst the threat of totalitarian regimes and the frenzy of McCarthyism. Recently, growing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postwar liberal tradition along with the resurgence of ideological polarization as an important political issue today; and how to evaluate the tradition, particularly around the concept of ‘Cold War liberalism,’ has become a major subject of debate among the contemporary (mostly Western) scholars of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We argue that examining these efforts has vital implications for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broad horizons of liberalism in Korean society. Thus, we offer the following analyses: First, we critically explore the terrain of recent discourse surrounding the concept of ‘Cold War liberalism’ and emphasize the need for revisiting the ‘moderate’ liberal tradition of the postwar period. Next, we examine the key elements of the anti-utopian liberalism formulated by Berlin and his contemporary moderate liberals. The conclusion offers some reflections on what implications could be drawn from the tradition for a more liberal and decent society in Korea.

Key Words | Cold War Liberalism, Postwar Period (post-1945), Isaiah Berlin, Anti-Extremism, Political Moderation